

인거부

허운정 축산물 등급판정사

늘 프로라는 자긍심으로
등급판정에 임해

-이 병 석-



◎ 인터뷰의 주인공 허운정 등급사

올해는 더위가 예년에 비해 빨리 왔다고들 한다. 그래서인지 다들 덥다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취재진이 찾아가던 축협공판장 축산물등급판정소직원들은 이러한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축산물 등급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급판정사를 찾아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등급업무에 대해서 요목조목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날 축협공판장 등급판정소를 찾아가는 시간은 오전 9시 20분쯤 취재진이 등급판정소 사무실을 들어가니 많은 분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특히 인터뷰를 약속한 허운정등급사는 약간 상기된(?) 모습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으며, 곧바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Q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등급판정사는 몇 명 정도이며 그 중 여성 등급사는 몇명이나 되십니까?

A 전국적으로 152명이 있습니다. 그 중 여성 등급사는 다섯명이구요. 현재 축공에는 21명의 등급사가 있으며 그 중 저를 포함해서 두명이 여성입니다.

Q 여성 축산물 등급판정사로서 지원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A 축산학(전남대 축산학과 89학번)을 전공하면서, 우리나라의 취약한 축산업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던중 등급제가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도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예! 그러면 등급판정사로서 얼마나 근무 하셨습니까?

A 저는 등급사 4기로서 15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 등급판정은 2인 1조로 이루어진다. 허운정등급사가 등급판정에 대해 상의하는 모습

Q 그동안 등급업무를 보는 과정중에서 여성으로써 애로사항이나 에피소드등은 없었습니까?

A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에피소드등은 없겠지만(?) 하루는 등급판정을 하러 현장에 내려가서 선배님이 판정을 하시고 저는 기록을 했는데 한참 열심히 하던 중 발끝의 촉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대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주위에 계시던 선배님들, 동기들이 와서 일으켜주며 다치지 않았나 걱정해 줄 때, 그리고 부러움과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세면장으로 향하며 그때의 근무를 대신해 주시던 선배, 동기들에게 따뜻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늘 감사하고 있구요.

Q 좋았겠는데요. 집에도 일찍가구요. 그러면 등급판정업무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 집니까?

A 하루중 1시간 30분씩 오전·오후에 걸쳐 2번 교대로 등급판정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 외의 시간은 판정결과에 대한 농가통보등 일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은 도체중량과 등지방 두께에 의한 1차등급판정후 외관(균형, 비육상태, 지방부착, 마무리)와 육질(조직감, 육색, 지방색과 질, 지방침착)판정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등급으로 합니다.

Q 전국 도축장에서 등급사들이 일일 처리하는 분량은 어느정도이며 그 중 축협공판장에서는 어느 정도 처리하십니까? 또한 허운정씨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등급판정하고 계십니까?

A 전국 도축장에서는 1일 평균 16,623두정도 등급판정을 하고 있으며 저희 축협공판장에서는 1일 3,000~3,300두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저는 하루에 250두 정도 판정을 하고 있구요. 참고로 작년(95년)의 경우 전국에서 총 4,998,905두를 등급판정하였습니다.

Q 등급판정사로서 전망과 직업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 꽤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등급판정업무는 전문직으로써 늘 프로라는 자긍심과 한차원 높은 국민생활을 선도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Q 등급판정사가 되기위한 방법 및 자격사항은 어떻습니까?

A 축산법 제44조 3항에 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써 축협중앙회장이 시행하는 등급판정사 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등급판정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그러면 등급을 받을 경우 등급이 삭감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A 보통 수컷의 경우 암컷보다는 한등급 떨어 집니다. 그리고 거세돈이 비거세돈보다는 육질이 좋기 때문에 등급을 잘 받을수 있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의 심사기준은 앞에 말씀드린 판정과정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Q 등급판정을 받을 경우 어떠한 제품이 최상등급을 받습니까? 농가에서의 주안점과 도축과정에서의 주안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소의 경우는 육량과 육질을 구분해서 판정을 하는데 돼지의 경우는 육량과 육질을 한번에 판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생체중이 95~110kg이 되어야 박피후 체중이 65~

75kg안에 들고, 등지방이 10~15mm되어야 A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하체중을 잘 고려해야 하며, 도축과정에서도 물리적 충격에 의한 골절이나 완전한 방열과 수세, 그리고 정확한 2분 할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Q 등급판정에 대한 관계법규나 앞으로의 등급판정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A 이 부분은 너무 거창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모호하구요. 어쨌든 농가에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등급업무가 잘 발전되어야겠지요.

Q 농가 및 정부에 하고싶으신 말씀은?

A 한 농가에서 25두 이상 출하시에는 축산물 등급 판정소에서 농가통보를 해드리는데 등급판정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가축개량에 크게 도움이 되고 국제경쟁력에 한발 앞선 선진 양돈농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Q 농가의 입장까지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계획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A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구요. 저희가 하는 등급업무에 대해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인터뷰에 응해 주신 허운정등급사님과 취재와 사진촬영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축산물등급판정소 소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취재진은 축협공판장을 뒤로하고 길을 나섰습니다.